

변화와 노력이 필요할 때!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보건 서비스는 일부 노동자에게만 제공되는 사업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비제조업 분야를 비롯하여,
특수형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형태의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산업보건 사업이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조기훈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직업건강환경연구실 실장

현행 산업보건 사업만으로 노동자의 건강보호가 가능할까?

어느덧 산업보건 분야에 종사한지 30여 년의 세월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주 40시간 제도의 시행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도 큰 변화가 있었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된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이며,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한 것이다. 법 개정 논의 초기만 해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정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

정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그동안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의 건강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산업보건의 현실은 어떨까? 30여 년 동안 산업보건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30년 전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이나 산업보건 사업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 현행 산업보건 사업은 거의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주가 법적인 의무로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사업장 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법적 의무로 실시하는 산업보건 사업이 사업장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보호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적 의무만을 이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행 산업보건 사업만으로는 모든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보건 서비스는 일부 노동자에게만 제공되는 사업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비제조업 분야를 비롯하여, 특수형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형태의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산업보건 사업이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는 기존의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산업보건 사업의 틀을 벗어나
시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보건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존 틀을 벗어버리고 다양한 산업보건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말을 훈련시키는 노동자에게서 폐암이 발생하고 네일숍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도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직업병에 걸릴 수 있다. 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을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 모든 업종에 만연되어 있는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새로운 노동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문제 등은 현행 산업보건 사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기존의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산업보건 사업의 틀을 벗어나 시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보건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보건 사업의 영역 또한 확대해야 한다. 기술적인 사업 중심에서 사회, 심리, 미디어,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중심의 산업보건 사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들이 산업보건 사업 영역에 함께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 또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보건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보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확하고 지속적인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센서의 개발이 필요하고 노동자 개개인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도입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로봇의 개발 등도 산업보건 사업의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산업보건 사업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식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면 사업주의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보건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산업보건 전문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유는 새로운 산업보건 사업을 개발한다고 해도 시장(사업장)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법적 의무 외에 다양한 산업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은 법적 의무만을 이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다양한 산업보건 사업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식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업주들이 노동자를 가족 같이 생각한다고 말한다. 진정 노동자를 가족같이 생각한다면 노동자의 건강보호에 사용되는 비용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소속 노동자의 건강보호가 기업의 경쟁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법적 의무만을 이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산업보건 사업이 아닌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산업보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노동자의 건강보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산업보건 사업의 개발 및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의식변화 또한 중요하다.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보건기관의 선정부터 프로그램 내용까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 산업보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민간 산업보건기관에 대한 감시·감독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 산업보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민간 산업보건기관에 대한 감시·감독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그동안 각종 기관 평가 및 정도 관리 등을 통해 질적 향상과 부실문제는 많이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퇴출시키면 될 것이다.

현행처럼 측정 시간을 규정하고 모든 방식을 법적 규제로 통제하려고만 한다면 새로운 산업보건 사업은 요원할 것이다.

민간 산업보건기관의 의식 또한 변해야 한다.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선제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언제까지 법에 정해진 사업만 수행할 것인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 산업보건기관은 새로운 사업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일하는 노동자가 있는 한 산업보건 사업은 지속될 것이며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다. 새로운 산업보건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장에 정착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요원한 일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법적 의무만을 이행하는 산업보건 사업만으로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기에 정부 및 노·사 그리고 민간 산업보건기관의 의식 변화를 제언해 본다. ☞